



법륜사 주지 보경 스님

불서 2천권 기탁
 지속적인 동참 약속



블모 허길랑씨

신축 법당 불상 지원
 훼손된 경우 교체도



'이불할매' 정역순 보살

좌복 5천개 '보시'
 제작에 분주한 나날

더이상 남의 일 아니다

군중교구-본사 '2006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 각계 지원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군중 특별교구와 본사가 공동으로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각계 각층에서 지원금이 답지하는 등 군포교에 대한 관심이 불교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송광사 서울 본원인 법륜사주지 보경(는 이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히며 불일출판사에서 발간한 불서 2000권을 기탁해 왔다.

법륜사는 그동안 호신불 카드 3만개를 제작해 군장병들에게 나눠 주었고 <운명의 변화> 등 불서 1만권 이상을 군법당에 기증해왔다.

법륜사 주지 보경 스님은 "군생활을 할 당시 군중병으로 열악한 군포교 현실을 몸으로 느껴왔다"며 "불서 한권이 군 장병들의 인생을 바꿔 놓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군법당에 불서 보

내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요, 보은, 입설, 우일 스님으로 내려오는 불모의 계보를 잇고 있는 허길랑씨는 신축되는 군법당에 석가모니 부처님 좌상(동불)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본사에 전해 왔다.

허씨가 이같은 발심을 하게 된 동기는 40여년동안 부처님을 조성했

지만 그 가운데서도 군법당 부처님을 봉안하는 일이 가장 보람 있었기 때문. 허씨는 "노후에 군법당 부처님 봉안을 혼자라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군포교를 위해 캠페인을 펼친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하는 마음에 이같은 결심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2면에서 계속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제를 갖추어서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법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조계종 군중교구 (02)749-864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몸무게 31kg
 극도의 근력 저하
 하체 감각 이상 징후



지율 스님 병원 입원

안동 토굴에서 일산 동대병원까지

지율 스님이 1월 5일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으로 후송되면서 스님의 건강을 우려하던 지인들과 국민들은 일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지율 스님의 건강이 풀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관계자들은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병실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지율 스님은 전국을 돌며 여행을 계속했지만 100일 단식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도반 스님 절과 토굴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 12월 초 지율 스님은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세영 스님이 주지로 있는 여주 신록사에 잠시 기거했으나, 12월 8일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도망치듯 신록사를 빠져 나와 허름한 민가를 개조한 경북 안동의 토굴에 머물러 왔다.

지율 스님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움직임은 주위 스님들 사이에서 은밀히 진행됐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풀이킬 수 없는 상황을 낳을 수 있었기 때문.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1월 1일 모처에서 만나 "지율 스님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며 부산의 천성산 대책위 관계자들과 함께 지율 스님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천성산의 생명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겠다는 지율 스님의 의지는 완고했다. 사회적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정부와 한국고속철도공단의 무성의한 행태에서 더 이상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변을 지키는 스님의 요청으로 건강검진을 위해 토굴을 찾았던 신현수 안동병원장과 병원 입원을 간곡히 요청하던 김희동 안동시장 등은 만나지도 못한채 돌아 가야만 했다. 은사스님과 사숙스님, 도반스님 등 주변사람들의 간곡한 요청이 결국 지율 스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입원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1월 4일 밤 최종적으로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으로 입원하기로 했지만, 지율 스님은 마음을 바꿔 1월 5일 새벽 대구 시내 병원으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율 스님이 의지할 수 있는 핵심 측근들이 영남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때



1월 5일 세영 스님(안동 신록사 주지)이 안동의 토굴에서 지율 스님을 업고 나오고 있다(사진 왼쪽). 같은날 오후 일산불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는 지율 스님.



같은날 오후 일산불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는 지율 스님.

대구 경북대병원에 입원하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입원 수속까지 마쳤으나 주위 스님들과 불교환경단체 실무진들이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1월 5일 3시 15분경 일산불교병원으로 후송됐다.

오후 3시 15분경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지율 스님은 이불과 모자로 전신을 뒤집어 쓴 채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세영 스님과 동생 조경자씨, 의료진의 보호를 받으며 응급실을 지나쳐 바

로 외과계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스님을 취재하려 몰려든 취재진을 피하기 위한 병원측의 조치.

이불과 모자 틈으로 얼핏 보이는 지율 스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 야위어 손이 닿는 것조차 위태로워 보였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 후송된 후에도 계속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천성산의 뒷산명과 함께 하겠다는 스님의 고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담당의 김영권 교수(중환자실장)는 "스님은 오랜 단식으로 인해 체

중이 31kg에 불과하며, 기력이 떨어져 극도의 근력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마비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하체는 감각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의 지를 북돋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동·일산=박봉영·유철주 기자

제11회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
 · 일사: 2006년 1월 21일(토) 오후 2시 · 장소: 현대불교신문사 법당

종단협 신년하례

16일 조계사 대웅전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회장 지관)는 1월 16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불교계 지도자 150명을 비롯해 정동재 문화관광부 장관 등 정관계인사, 종단 주요단체 인사 200여명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할 이날 법회는 지관 스님의 신년 법어, 부회장이인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4시에는 종단협 이사회가 열린다. 김주필 기자

'상락원' 명칭 변경

승가원 장애아동 요양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산하 중증 장애아동요양시설인 '상락원'이 올해부터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로 명칭을 변경한다.

승가원 이사장 종법 스님은 최근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차 임사이사회에서 경기도 이전에 새로 건립되는 승가원자비복지타운과의 균형 발전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해 상락원의 명칭변경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승가원은 기존의 소책세마을을 경기도 이전으로 이전해 불교최대 장애인시설 승가원자비복지타운으로 새롭게 건립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완공된다.

이은비 기자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해인사 동당 수좌 도견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심청이 선생님' 이은우씨

능가 스님의 '4강3륜' 5면
 자원봉사법과 교계 과제 4면



개의 해 사찰 '명견' 9면
 스스로 '공부' 점검 18면
 법계도를 설치미술로 23면
 2006년 건강캘린더 27면

불교 문화와 산업의 역사적 만남, 2006한국불교박람회가 함께 합니다

2006 한국불교박람회

3월 23일(목)~ 26일(일)

BBS불교방송은 불교 관련 산업의 새 역사를 열 2006한국불교박람회를 치러야 한다. 현재 불교산업을 이끌어온 유수의 기업들은 물론 불교 관련 산업 신생업체들의 참여로 성공적인 개최를 여고하고 있습니다. 미래 불교 산업을 주도할 단 한번의 기회인 2006한국불교박람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업체 모집
www.bexpo.org

신청마감 **2월3일(금)까지** (선착순마감)
 장소 서울무역전시장 (SETEC)
 신청문의 TEL.(02)736-0993

출품대상품목

사찰건축 및 불교문화: 사찰건축: 종각, 종루, 석재, 목재, 황토, 조경, 난방, 기와, 전기, 조명, 단청, 불화, 청동, 사찰양식, 조립식건축, 지하수개발, 간판제작, 계사, 배수, 유지보수: 성보 보수(복합, 석조, 기와, 보수재배설, 청소), 발원법(비디오, CCTV), 방재, 금고, 안전문, 안전망, 김희우리 등 **불교문화**: 음향영상, 스피커, 조명, 인터랙티브, 홈페이지 제작관리, 컴퓨터프로그래밍, 워싱턴, 플로그라프 등

장래문화, 사찰전시 및 기타 **장래문화**: 남불관련 특별전시관, 불교장례문화 소개 등

행사기획: 행사종합기획, 출연자배치 및 공연, 음향, 조명, 무대장치, 기념품, 여성사, 한복 및 행사소품 등 **불교용품**: 불상(부처, 관, 목조, 반종, 법구, 띠어, 목탁, 죽비, 요령, 연등, 차기 불교용품, 도서, 기획출판, 사보, 향, 초도, 기증, 연등, 표구, 목자, 순병, 의복 등 **종단 및 교구**: 각 종단 특별전시관, 중립학교 및 각종 관련 학교 교육전시 등 **설치미술**: 종단 및 사찰 공주형질, 법구, 세우, 각종 안화기, 템플스테이 등

기획 전시 및 전통차, 향품: 전통차: 녹차, 보미차 등 각종 차 및 다구 **한글역**: 사찰 특산물, 차, 신라관 농산물, 생식 향 **발원문**: 발원문, 선묘, 선묘, 선묘, 선묘 등

이외 전시 및 부대행사

특별공연: "BBS 특별 공연" "불교의 국악이 한마당"
 예회전시: 마우전시장 특별운영

주최: BBS불교방송, (주)제이컨벤션 주관: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